

### 임용택 전북은행장 퇴임

# “한결 든든한 마음으로”

창립 이래 최고 순이익  
은행 전성기 이끌어  
전은 자행출신 행정  
탄생에 물꼬 터 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날 31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원, 전북은행 임원진 및 센터장, 부·실장, 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제11대 임용택 은행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2017년과 2019년까지 3연임에 성공한 은행권 '최장수 CEO' 타이틀의 주인공이었으며, 전북은행 창립 이래 최고 순이익을 내며 전북은행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2018년에는 '따뜻한 금융 비전 선포식'을 필두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표방, 금융 소외계층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전북은행의 포용적 금융은 서민금융 확대의 기여를 인정받아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날 31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11대 임용택 은행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창을 수상했으며, 청년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창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서 임용택 은행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따라와 준 임직원의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한결 같은 사람으로 전북은행을 성원해 주는 고객과 주주, 전라북도 지역사회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많은 이들이 연임을 기대했던 임

용택 은행장은 4연임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 위해 용퇴를 선언하며, 전북은행 자행출신 행정의 탄생을 물꼬를 터 주었다.

임용택 은행장은 "맡은 바 자리에 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있기에 한결 가볍고 든든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며 "서한국 삼임 은행장이 직원들의 신뢰가 두터운 만큼 따뜻한 리더십으로 보다 강렬한 화합을 이끌어 앞으로의 전북은행이 비상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 ‘상공의 날’ 모범기업인 표창

이교진 일진제강 대표, 대통령 표창 수상받아

신민철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장, 산업부장관 표창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지난날 31일 제48회 상공의 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이교진 일진제강(주) 대표이사과 신민철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교진



신민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하이트진로(주) 신민철 전주공장장은 1994년부터 제품개발 관련 여러 부서 근무를 통해 쌓은 양조 전문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2019년 3월 신제품 '테라'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 경영을 위해 신공장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 및 운영으로 배기가스 배출농도를 12ppm이하(법정규정 40ppm)로 유지하고 있으며, 수질·대기·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최종 처리단계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이 환경친화적인 대표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공헌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일진제강(주) 이교진 대표이사는 1985년 입사 후 국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금속 성형분야의 부품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성공해 국내 자동차와 산업기계, 반도체, 플랜트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렸으며, 수입에 의존해온 조항장치 등 자동차 핵심 부품 및 특수정밀 강관을 자체 기술개발로 성공시켜 20여개 국가에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부품 소재 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일진제강(주)는 2010년부터 임직원 수해복구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기초 소방시설,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역 대학에 일진 연구기금을 출연,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의 전문 엔지니어 육성에 힘쓰는 가운데 채용에 있어서도 전북지역 대학출신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전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교진 대표이사는 "앞으로의 전북은행이 비상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익산지역 상공인들, 상공의 날 표창

전병곤 덕산레미콘 대표·장용학 LG화학 익산공장장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 행사에서 익산에 소재한 (주)덕산레미콘 전병곤 대표이사 산업포상, (주)LG화학 장용학 익산공장장이 국무총리 표창, 전북에너지서비스(주) 윤성현 본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병곤



장용학



윤성현

산업포상을 수상한 (주)덕산레미콘 전병곤 대표이사는 친환경 설비 투자로 화석연료 ZERO를 실현과 에너지 절감, 친환경 경영으로 정부 정책 부응과 사회발전에 공헌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주)LG화학 익산공장장 장용학 공장장은 석유화학 외질의 전문가로서 익산공장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체적 노력관계 구축, 환경안전 투자 및 사고예방 노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기에 전

념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전북에너지서비스(주) 윤성현 본부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자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직간접 지원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다양한 사내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날 31일 도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북지역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전북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실무협의회'를 전북중기청에서 개최했다.

전북중기청이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간사), 전북테크노파크 등 20개의 자동차산업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북지역의 중추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발전방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기업지원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업체를 지원하던 기존의 칸막이 지원 방식을

타파해, 지원기관들이 보유한 지원 수단들을 연계 협력해 누적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참석기관들은 향후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의 실행력 등을 한층 더 견실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전북지역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과 발맞춰 전북지역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 전개공, 임대아파트

## 입주민 임대료 2년 동결

전북개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

공사의 이번 임대료 동결은 부동산 양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대료 지원책을 통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4월 전북 중기 업황전망 상승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가 지난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31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21년 4월 전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3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0.2로 전월대비 7.5p 상승(전년동월대비 8.0p 하락)했다.

이는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고 코로나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잠재적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황별로는 제조업에서 80.4로 전월 대비 6.9p 상승, 전년동월대비 6.7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57.0으로 전월 대비 7.9p 상승, 전년동월대비 10.0p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내수판매(59.0→68.7), 수출(85.7→100.0), 영업이익(57.0→67.2)전망, 자금사정(59.4→67.2)에서 전월대비 상승했고, 고용수준(90.2→89.7)전망은 전월에 비해 하락해 모든 항목에서 전월대비 경기가 호전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NH친환경기업우대론'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그린뉴딜 정책방향에 맞춰 친환경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대출 및 금리를 우대하는 'NH친환경기업우대론'을 판매한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NH친환경기업우대론'은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평가 우수기업 및 녹색인증(표지인증)기업에 대해서는 ESG 환경경영 기여도에 따라 최대 1.5%p 금리우대 및 추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ESG 특화상품이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정부부처 주관의 ESG 캠페인(K-RE100, K-EV100 등) 참여기업에 0.1%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며, 대출 지원 기업에는 농식품기업 컨설팅 등 농협은행의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 익산 농어촌공

## 청렴이행각서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민수)는 지난날 31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사장·공사사무소장·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이행각서 교환과 건설현장 품질·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김민수 지사장은 공사와 시공회사 모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불공정 행위 근절은 물론 부패없고 청렴한 공사현장 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 생명·안전을 보호 안전사고 ZERO의 무재해 현장 달성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사진 가운데)이 지난날 31일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4개 국립연구기관 합동 R&D 혁신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정부 임무형 농업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

### 농진청 4개 국립연구기관 합동 'R&D 혁신과제 추진계획'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소속 4개 과학원의 정부 임무형 농업 연구개발(R&D) 경쟁력 향상과 연구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을 지난날 3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 농촌진흥청 등 11개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임회의에서 확정된 '국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에 농진청 소속 4개 과학원이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그에 따른 기관별 세부 이행방안이다.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은 국가 농업 R&D의 중심기관으로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변화와 R&D 혁신을 위해 4개 과학원은 공공연구기관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임무형 공공 R&D를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연구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과학원은 공공연구기관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주관의 ▲연구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 ▲국립연구기관의 전주기 R&D 수행체계 고도화 ▲공공연구기관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과 7개 과제에 대해 공공성과 혁신성, 개방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농진청은 우선 '연구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적 프로젝트팀을 발굴·운영해 4개 과학원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연구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업무 최소화해 연구 집중 환경을 조성한다.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따른 국정현안 대응 분야 인력을 확대하고, 특별승진(30% 내외)과 경력채용(60%) 확대를 통해 연구인력 운영체계의 혁신을 강화한다. 4개 과학원별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의 특성을 살린 시계계획과 고유사업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립연구기관의 전주기 R&D 수행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장수요발굴단 운영 등 기술수요 조사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고, 수요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강화한다. 또한 리빙랩, 블렌딩, 현장실증연구로 과제 운영방식을 다양화해 현장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고유연구 자체수

행 과제비중을 95% 이상 유지하면서 정부 임무형 공공 R&D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유연구 과제당 연구비를 규모화해 안정적·중장기적 농업연구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평가위원의 기관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책임평가위원회'를 도입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유사업·과제의 성과목표·지표와 평가기준을 과학원별 특성에 맞게 설정해 정부 임무형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과학원별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략 수립과 환류체계 마련을 통해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성과 창출을 견인하고, 성과평가의 주체를 수요자 중심(농촌지원국)으로 전환하여 영농현장과 산업체로의 성과확산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농진청은 '공공연구기관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하향식 산·학·관·연 공동연구사업과 융복합 다부처사업의 수요발굴·기획을 통해 공공연구기관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기관고유 시험연구비(4개 과학원)와 출연금(국립원, 민간연구기관)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처·기관 간 협업정원 발굴을 통해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